

동감이다, 그런데 몇 가지

장 일 조

한신대 철학과 교수, 인문대학장



1. 전적으로 동감이다

오 랜만에 조동일 선생을 TV에서도 보고, 신문에 쓴 글도 읽으니 옛날 잠시 같이 있던 시절이 되새겨진다. 여전히 왕성한 연구열에 불타기는 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구나 싶다. 끊임없이 무슨 일을 꾸미고 시도하지 않으면 좀이 쑤셔서 못 견디는 체질이라는 나의 평소의 인상이 크게 빛나가지는 않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치 대신해 주는 것 같아서 후련하고, 나도 조동일 선생이 직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평소에 늘 느껴 왔던 것이다. 그래서 나 혼자서는 마음 속으로 '우리나라 대학은 대학이 아니다, 교수도 교수가 아니다, 학문도

학문이 아니다, 연구도 연구가 아니다,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조금은 과격하게 비판적으로 생각해 오던 차였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오늘날 우리 대학의 이와 같은 한계상황적 현실을 과감하게 자기 비판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동일 선생이 신호탄을 먼저 쏘았다. 나는 박수와 환호를 보낸다.

조동일 선생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와 관련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이것 저것 지적하는 방식으로 문제성을 드러내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것도 문제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보다 원칙적으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욱 더 좋은 일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과 교수가 당면하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

려면 몇 가지 선결조건이 해결됨으로써 가능하리라고 본다. 다음에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한다.

2. 대학의 독립과 학문의 자유

이러한 요청은 조금은 과격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다. 대학이 그 나라의 사회(경제·정치·문화를 포괄하는)와는 사회적으로 매우 많이 상관되는 부분과 비교적 자유로운 부분이 구별된다. 응용적인 학문은 사회현실과 긴밀하게 상관되고, 순수한 학문은 비교적 자유로운 관계에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순수한 학문 분야까지 모두 응용학문처럼 사사건건 현실정치의 간섭과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대학의 독립과 학문의 자유는 순수학문 분야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응용학문 분야라고 해서 현실정치의 갈팡질팡하는 체계 없고 일관성 없는 정책에 끌려다닐 수는 없고, 오히려 순수학문이 파악하는 세계관과 세계상의 빛 안에서, 응용학문이 도구·기능적으로 이바지해야 할 바를 묻고 방향을 얻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응용학문도 현실정치의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정책에 이끌려 다니기보다는 순수학문이 제시하는 원칙에 더 밀착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대학의 독립과 학문의 자유다. 현실정치는 이러한 대학과 학문을 정치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조건에 놓아두어야 한다. 그래야 그 정치가 바른 정치인 것이다. 학문적 원칙이 현실정치를 지배해야지, 현실정치가 학문을 지배하면 나라가 안 된다.

3. 학문이론 없는 대학

오늘날 한국 대학이 부실한 것은 대학의 역사도 짧고, 나라가 당장 먹고 사는 데 바빠서 대학을 먹고 사는 데 써먹는 것으로만 생각한 데도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문화와 풍토가 자연스럽게 전개된 데는 미국적 실용주의와 그 교육철학의 영향이 결정적인 것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러한 실용주의에 지배되고 있는 미국식 교육 모델이 세계의 교육 모델이 되고 있는 오늘의 세계 상황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을 그 핵심에서 좌우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러한 미국적 실용주의자, 기능주의자, 통제주의자, 실증주의자, 업적주의자들이 아닌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해방 이후 지금까지 줄곧 미국적 실용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교육을 이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지배해 오지 않았던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정책이나 21세기를 대비한 과학기술 정책도 마찬가지다.

미국적 실용주의는 세계에 대한 체계적 인식도 없고, 따라서 세계 상황에 대응하는 실천적 방책도 없다. 세계를 기능주의적으로 인식하고, 도구주의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에는 당연히 세계 전체에 대한 세계상이 없다. 그러므로 세계에 대한 체계적으로 통일된 인식(Universum)이 없는 실용주의 교육철학에서는 잡다한 기능적 지식을 다루는 대학(Multiversity)이 있을 뿐, 대학다운 대학(University)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미국적 실용주의와 기능주의에 의한 세계 인식으로는 언제나 장님의 코끼리 같

은 세계(Multiversum)가 파악될 뿐이다. 이러한 세계 인식은 마침내 세계에 대한 혼란상에 봉착할 뿐, 세계의 질서 정연한 존재질서에 따라서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일사불란한 삶의 이념과 목표를 제시해주지 못한다. 그냥 그날 그날 눈앞에 닥치는 코앞의 현실문제를 타개해 가는 것으로 그만이다. 오늘날 우리 대학의 이념과 실체가 바로 이것이다. 대학의 이러한 뻔뻔하는 것과 같은 기능적 지식생산 상황은 현실정치에 의해서 더욱더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세계관 없는 대학, 세계관 없는 대학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 세계관 없는 대학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적 실용주의, 실용주의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자본주의를 지배하고 있는 육체적 인간, 육체적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인간의 감정, 인간의 감성을 지배하고 있는 인간의 생리적 본능. 이러한 세계는 결국 알콜·섹스·마약에 의한 인간의 파괴와, 엔트로피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의 파괴로 종말에 이른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상과 세계상을 정당화하고 있는 다윈주의·프로이드주의·맑스주의·니체주의.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인간과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적 담론이다.

4. 세계관적 학문의 탄생을 위하여

조동일 선생이 지적한 것들이 모두 절실 하거니와, 그 중에서도 오늘날 우리 대학은 장편소설은 못쓰게 하고, 이백자 원고지 일백 장짜리 단편소설만 쓰게 한다는 대목에 제일 공감의 간다.

그러나 이 문제도 순수학문과 응용학문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달리 말하면 목적과 이념의 과학(순수학문)인가, 수단과 실제의 과학(응용학문)인가에 따라서 서로 차이가 있다고 본다. 목적의 과학은 필연적으로 존재의 전체성과 연관되어서만 그 탐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은 세계를 체계적으로 사유하는 철학적 차원의 학문이기 때문에, 세계나 존재의 부분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능적이며 실용적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수단의 과학은 인간의 사회와 그 역사현실이 직면하는 문제를 방법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그 방법은 그 문제가 제기하는 상황과의 관계에서 적절히 타협하는 것으로 사명을 다한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수단의 과학은 한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먹고 나면 두번 다시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회용 소모품과 같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속도가 빠른 오늘날에는 더욱더 그렇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수단으로는 필요한 것이지만, 목적으로서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신과학과 자연과학 그리고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을 성격상 통합하고 있는 인간·사회·역사과학을 크게 구별해야 한다. 이것은 세계 존재에 대한 인간의 총체적 인식체계를 의미한다.

조동일 선생은 인간·사회·역사과학 분야에서 있고, 그것도 자연과학적으로가 아니라 정신과학적으로 그 분야에 접근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에 대한 조동일 선생 자신의 명백한 학문이론적(wissenschaftstheoretisch) 자각이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교수들은 그가 하는 학문의 이념과 방법을 동시에 확고히 하면

서 자기의 논지를 펼쳐가야만 하는 이중 부담을 운명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념과 목적은 세계의 전체성과 본질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것은 당연히 정신과학의 지평 안에서 이루어지고, 혹시나 '자연과학이나 인간·사회·역사과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당연히 정신과학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사물의 이념과 목적을 목적론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러한 성격과 방향의 작업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오래고도 많이 필요하다. 나의 기분으로 말한다면, 10년의 침묵 끝에 마침내 대작을 내어 놓았다는 것이 적절한 학문적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한 이념과학의 경우일 것이다. 삶의 일상적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해야 하는 현실과학은 그 본질상 그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한국인으로서 세계적 학문을 할 수는 있지만, 한국적 관점으로(특수성) 세계를 바라볼 때, 세계의 전체성과 본질을(보편성) 과연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을까? 나의 희망은 그것이 가능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세계성과 본질을 담아 낼 수 있는 충분한 한국적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

장일조/독일 보름 대학 철학부에서 수학하고, 현재 한신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문대학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욕망과 충족의 변화 체계 - 세계관의 변증법』 등이 있고, "세계체계의 변증법적 구조를 위한 비망록 - 신과 인간과 자연의 통일"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